



특별기고
윤소아의
미얀마 라오스 문화기행 ④

라오스 자연·국민성 순수한 나라로 '정평'

#미얀마 여성 정결한 인상취

2주간의 짧지 않은 미얀마 여행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니 중요지역을 가지 못해 아쉬웠다. 무속정령신앙의 고향 바간의 뽀빠산. 미얀마 최고의 여름 휴양지이며 수상마을로 유명한 인레 산정호수. 바고의 짜이따오 황금바위며 인도 뱅갈만과 접해있는 나팔리 해변 등이다.

마지막 날, 칸도지 호수공원에서 점심을 먹었다. 우리와 닮은 산족 식당 주인은 내가 전통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니 김치를 꺼내오며 매우 반가워했다. 어떤 동질성을 느낀 것일까.

성격이 매우 화통하다. 한참 호수가를 산책하고 있는데 7-8명의 여성들이 양산을 쓰고 지나가므로 기념사진을 한 장 찍자고 하니 순순히 응한다. 소승 불교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우리에게 비구니스님처럼 독립된 위치에 있지 못하다지만 내가 보기에는 매우 건강하고 활기차며 정결한 인상이라서 최고의 여성상을 보는 느낌이다.

힘들고 불편한 여행을 마쳤다는 해방감과 아울러 마음이 뿌듯하다. 수 천 년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지킨 미얀마인들과 영국 식민지를 비롯한 군사독재정권에 큰 희생을 무릅쓰고 항거 투쟁한 미얀마 불교 승단에 경의를 표한다.

현편으로는 1700년 고구려 북방불교와 2000년 가야 남방불교의 역사를 함께 갖고 있는 한국불교가 500년 조선조 유교 왕조의 모진 탄압과 핍박을 이겨냈으나 근대사 100년의 외세침략, 식민지 억압, 독재정권에 한걸음이 대응하지 못했음을 불교인으로 부끄럽게 생각해 본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과 방비엥의 자연

오전 11시쯤 태국 수원나 폼 버스터미널에서 농카이행 티켓을 예매했다. 태국에서 라오스로 가는 버스길은 농카이 쪽이 가깝다. 예전에는 미얀마에서 태국 라오스로 가는 육로행이 있었으나 지금은 오직 항로밖에 없다.

카오산 배낭여행 전국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약간 버스로 북쪽쪽 농카이에 도착했다. 아침 6시 30분, 10시간이 걸린 셈이다. 국경 사무실에서 비자를 받아 버스를 타고 20분, 어느덧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이다.

인구 30만 명의 작은 도시이며 아늑한 메콩강을 끼고 있는 비엔티안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현대적인 도시다. 물가가 태국만큼 비싸 값싼 게스트 하우스를 찾아라 불발되기에 애를 먹었다.

집을 풀고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한국 여행사가 있어 여행정보를 안내받았다. 그 직원은 라오스가 작지만 물가가 비싸고 생활수준과 소득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영향권으로 미얀마와 비슷하다고 여겼으나 그것은 선입관이고 사실은 태국과 비슷함을 일주일 여행동안 알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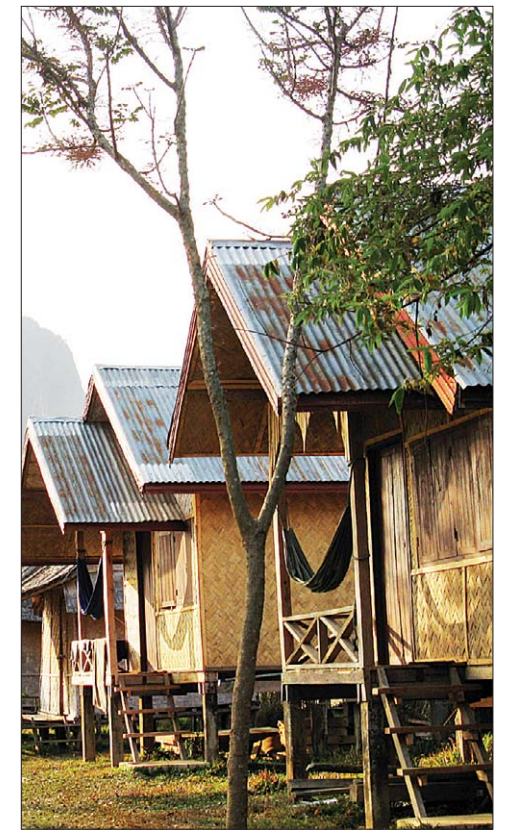
남한의 두 배 정도 크기에 인구600만이며 국민의 95%가 소승불교를 신봉한다. 국토 3분의 2가 산악지대로서 한국과 지형이 비슷하다. 개발이 안 된 덕



방비엥의 아침 공양 탁발 행렬.



방비엥 사원에서 신도들이 아침 공양을 올리는 모습.



방비엥의 산수. 목조 방갈로.

수천년 역사와 문화 지킨 미얀마인과 불교승단에 '경의' 사회·자본주의 공존 라오스 생활수준 등 태국과 비슷

분에 원시림과 야생동물의 천국이라 한다. 캄보디아에서 온 라오족이 절반. 타이족이 20%, 나머지 47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망이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와 접경지대인 탓에 역사적으로 지배와 영향을 받았고 근대에는 불란서의 베트남 식민지와 맞물려 식민지와 미국의 폭탄 침공을 받았다. 살아남은 라오스는 평화를 사랑하고 느긋함이 특색인 나라다. 라오스가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덜 알려진 만큼 자연환경과 국민성이 지구상에서 제일 순수한 나라라고 평가 받는다.

#미얀마 라오스처럼 남북관계도 변화하기를...

14세기 중반, 캄보디아의 도움으로 백만 코끼리를 상징하는 최초의 왕조 랑쌍왕국이 건국되고 17세기에는 캄보디아와 함께 동남아시아의 지배세력으로 성장한다. 이 시기 파용을 왕은 소승불교를 국교로 삼고 파방 불상을 라오스 국가의 상징으로 정했는데 왕국의 옛 수도 푸앙프라방은 불상의 이름이다. 중국·베트남·소련이 지원하는 공산주의와 프랑스·미국이 지원하는 반공식민지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지혜롭게 살아남은 라오스는 사회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고 1980년대의 중국·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의 노선을 택했다. 중국·베트남·태국과의 교역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미국의 30년 경제제재에서 풀려나 오늘날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이 잘 산다고 자랑하지만 남북문제에서는 말

문이 막히는데 세계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상황으로 남북이 다 같이 불행하다. 좌우파 독재정권의 유지라도 좋으니 북한 체제가 변화가 생겨 제발 미얀마 라오스 수준만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관광 교역 투자의 완전개방과 동과 서를 잇는 신실크로드의 육로 철로를 남북이 공동개발한다면 남북의 번영과 평화공존은 물론 세계평화의 기여는 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늦은 오후 6000여 불상이 모셔져 있는 왓 시사켓. 라오스의 상징인 장엄한 파닷무양사원, 파룩사이의 개신교, 씨앙쿠앙의 거대한 부처공원을 참배하고 매콩강변의 노천식당에서 고기잡이 어선과 갈대숲을 바라보는 정취가 특별했다. 이곳 역시 웨스턴 여행자들의 겨울 휴양지. 강변의 수 킬로에 달하는 호텔, 식당, 노천카페를 그들이 점령하고 있느니 말이다.

#한적한 산골 방비엥 관광지

계림산수와 하룻배처럼 수려한 산과 강이 있는 방비엥은 본래는 한적한 산골이나 관광지로 개발돼 이곳이 태국인지 라오스인지 분간이 안 간다. 비엔티안에서 북쪽으로 3시간에 불과한 가까운 거리에 있어, 게스트 하우스와 인터넷 카페, 술집 식당이 즐비한 메저 휴양 탐험지로 관광객을 유혹한다. 등골 탐사, 암벽등반, 매프링, 튜빙 등을 즐기 위해 일본, 한국 젊은이들도 적지 않게 온다고 한다. 한국 여성 여행자들을 여러 명 만나 여행담을 주고 받았다.

라오스 전통 목조 주택의 정갈한 방을 칸 없이 예약하고 강변을 산책했다. 메콩강의 지류인 송강은 폭이 좁으나 길며 물살이 세지 않아 물놀이에 안전맞춤이다. 대나무로 지은 방갈로와 리조트는 가족 휴양지로 적당하다. 마치 태국의 북부 산간마을과 파이와 흡사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웨스턴 여행자들이 많이 오다보니 할리우드의 저질영화나 마리아나, 시끄러운 랩 음악이 판을 치게 돼 평화롭고 깨끗한 마을이 태국의 관광도시처럼 타락해 간다는 탄식도 있다.

열대기후로 낮에는 뜨겁다가 저녁이 되면 가을 날씨처럼 서늘해진다. 일교차가 매우 크다. 변화가 한 모퉁이에 한국 식당이 있어 들렸으나 저녁에는 술만 판다고 해서 실망했다. 경상도 고향의 주인아주머니를 만나 라오스 사업과 이곳 방비엥의 생활, 한국인 여행자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사쿠라식당이라는 간판이 있어 물었더니 중국 운남성 리장의 사쿠라 한국식당이다. 중국인과 결혼한 부산아가씨를 기억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그 식당주인을 보니까 뜻밖이다. 아마 사업 확장이 여기까지 미친 것 같다.

#산골마을의 닭우는 소리에 잠깨

닭 울음이 시간마다 일정한 것을 보면 이곳은 아직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것일까. 새벽 4시, 5시, 정확하게 장닭이 울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꼬꼬' 소리가 들린다. 한국에서는 벌써 잊어버린 소리인 자연시계다.

6시 마지막 닭 울음에 이어 마이크음악이 마을을 뒤 흔든다. 6시 기상 신호다. 미얀마에서도 그랬었다. 외국여행자들은 밤늦게 놓고 아침 늦게 일어나지만 미얀마 라오스인은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곳의 음식은 라오스 태국 중국 서양의 퓨전 음식이 주종을 이룬다. 특히 여기서 가까운 커피농장이 있어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생생하다.

다음 날 아침 1km 떨어진 사원으로 아침산책을 했다. 가는 도중 열대여섯 명의 스님들이 아침 탁발을 하는 광경을 지켜봤다. 일렬로 나란히 기러기처럼 정돈된 모습에서 경건함이 묻어났다. 수백 년은 족히 되었을 목조 법당 옆의 시멘트 큰 강당에서 신도들이 아침공양을 바친다. 남방불교는 거의 국교적인 위치에 있지만 부처님 당시의 수행 규칙에 따라 하루 2번 식사에 오후 불식이 일반화 돼있다. 미얀마처럼 소년 승려들이 배가 고파서 저녁에도 탁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예외다. 또 무소유의 계율을 따라 돈을 받아도 재산을 축적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생활에 자족하고 어려운 민중들을 위해 보시, 회향하는 관행이 보편적이다. 계율과 교리보다 자본주의 법칙을 더 따르는 한국 승려의 현실과 개인에게 맡길 뿐 승려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는 종단의 규범과 대비된다. 방비엥의 승가대학이 있는 큰 사원에서 젊은 승려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라오스 불교의 특징을 묻자 그 중 한 승려가 남방불교는 테라바다(Theravada) 불교로서 상좌부 근부 불교를 신봉한다고 말했다. 시인, 동아시아불교문화연구소장

무혈, 무통, 무약, 무수술 !!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안내

※ 1기, 2기 전수교육에 참가하신 재가 및 스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한빛 仙師]

독일 East West Alternative 메디칼센터 특수침술교육
일등 난치병 공동연구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원 객좌교수
동아대학교 대체의학 최고위과정
교수역임
애디게 찾았던 숨은 명의 50인 선정
세종문화회관 건립선생터 특별강연
"암 정복의 길이 보인다"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등 7권의 건강저서 집필

- 23년이란 오랜 세월 속에서 마침내 다이아몬드를 찾아냈습니다. 의학의 본고장 독일에서(EastWest Alternative medical center) 세계최강, 최고수 의술임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제는 5000년 단군역사 이래 東西洋의 의학과서를 새로써야 할 때입니다.
- 그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분야별 최고수(선지사)들을 만나 醫道와 仁術을 깨우쳤고,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수백 명에 달하는 말기암환자와 난치성희귀병(파킨슨, 아토피, 간질, 치매 등) 환자를 상대로 고귀한 임상체험을 통해 생명 살리는 비법을 축적하였습니다.
- 群盲撫象이요 管中窺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만의 잣대로 虛空을 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最高手라고 생각되어 한수 배우려고 찾아가다가 돈과 시간만 허비한 채, 과색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오던 쓸쓸한 지난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名實공히 세계와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최상의 活人기술임을 세상에 알리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수해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기간동안 각자가 모시고온 환자를(어떠한 난치, 고질, 희귀병 환자도 관계없음) 대상으로 實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최단기간 내 완벽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Triple combination therapy (三正오법)

- 1) 正骨整體 :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
- 2) 正血清血 : 전신의피가마음이야 無病長壽 (15개연문論)
- 3) 正氣(通經活絡) : 전신의 氣氣 疏通하여 無病長壽 (氣塞則死)

• 내과적영역 초중 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약시, 턱관절장애, 배내장, 아토피등 악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악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요실금, 자궁근증, 물혹(파킨슨,루게릭은 임상중)

※ 10년~20년 이상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10회의 시술로 사라집니다.

- 교육장소 : 강화도 한빛 修練院 (전등사 인접)
- 교육기간 : 5월 18일 ~ 5월 23일 [5박 6일]
- 전수비용 : 200만원 (숙식제공) • 계좌번호 : 농협 136-12-537835 [예금주 : 김재정]
- 전수교육 안내 0321937-7182 / 010-5721-2266 전국대표 1588-7638 WWW.HANVIT.TV

주최 : 제3의화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후원 : 한빛웰빙건강 창업지원센터 (피부, 비만, 통증) 한빛웰빙건강문화원 (전국지역별 센터설립문의)

제 3기 선학순 12명

• 외과적영역 목,허리디스크,안면마비,모든 종류의 두통,현운,삼차신경통,좌골신경통,골반통,항강통,어깨결림,오십견,테니스 엘보우,수족마비,척추관협착증,강직성척추염,3.4기골다공증,하지무력증,통풍,류마티스,퇴행성무릎관절염,악성무좀,중풍후유증,뇌성마비,생리통,제마리증,족저통,수전증,족저통,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 10년~20년 이상된 통증이 5번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즉시 90%이상 사라집니다.

•참가대상

병ilyn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통증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등 의료인상담환영) 물리치료사, 중의사, 침, 뜸, 부항사혈요법사, 수기치료사(지압, 카이로프랙틱, 추나요법)등 재야의료인, 氣지료사, 스님, 목사님, 태권도, 합기도, 체육관, 각종수련원, 단식원운영자 각종 의료기흥보관 운영자 등 웰빙 건강사업 종사자, 대체의학및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각종 난치, 고질, 희귀성 질환자가족분